

성도의 벗 5

1980



차 례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튼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대관장단 메시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
위임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위임하지 않는 방법 :		
가정과 교회를 위한 제언.....	윌리엄 지 라이어.....	7
여러개의 음성.....	로버트 알 본.....	11
보상받은 인내.....	엘리사 제이 폴슨.....	14
낭비한 우표.....	로나 바넷트.....	16
바로 저분입니다 말하세요.....	브르스 시 헤이튼.....	18
길가의 사람들.....	오 모델 클라크.....	20
내 친구.....	코니 윌 콕스.....	21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22
만능 돌고래.....	존 안드레 무어.....	24
털 목도리.....	도로시 에스 앤더슨.....	27
겸손과 존귀와 위엄으로.....	리 아더 헤이콕크.....	29
준비의 신전.....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30
신혼 부부가 준 선물.....	유진 에이 카푸토.....	34
바른 방향으로 움직임.....	뱀잔 파크.....	36
영원한 우선 순위의 선택.....	빅터 엘 브라운 관리감독.....	38
지역 지도자 메시지.....	김 중 열.....	44
해외 소식.....		45
지역 소식.....		46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78호, 제16권 제5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널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80년
제16권 제5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인 유진 피널



기도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경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그런가 하면 “나무가 어릴 때 구부러지면, 그 나무는 구부러져서 자라게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생각과 행동에서 바른 습관을 가질 때 파멸의 함정은 사라지고 위대하고 힘찬 세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즉 음식, 의복, 건강, 우리의 생명, 보고 듣는 능력, 음성,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심지어 우리의 두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십대 초반기의 한 소년이 지혜가 부족하였으나, 신앙이나 성실함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닫혀 있던 하늘을 열었으며, 혼돈된 세상의 문을 열고 발전의 미래를 보게 했습니다. 그날 평범했던 숲은 거룩한 숲이 되었으며 영광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나무도 거룩하게 되었고 땅의 흙까지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제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을 심판하는 자 앞에서 기억되리라.” (교성 63 : 33)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성 68 : 28) “또 다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도 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도 하며 회중 앞에서도 하고 홀로도 기도하라.” (교성 19 : 28)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가족 전체나 또는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서 가족 기도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기도는 어린 자녀가 함께 무릎을 꿇고 참여하는 경우 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선교 사업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일생을 두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면 그는 후에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력과 지혜와 판단력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 병든 자, 궁핍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죄를 짓고 좌절감과 혼란에 빠져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극히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는 보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구적으로 무릎을 꿇고 드리는 정식 기

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좀더 친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 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것을 간구하게 되지만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절실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우리 스스로의 약점을 고백하며, 우리의 범법과 악한 생각을 극복하게 하고 용서해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기가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을 오랫동안 원수로 삼고 계속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 앞에서 우리는 모든 가식이나 기만을 벗어 버리고 창조주 앞에 있는 그대로의 성실한 자세로 서게 됩니다.

또 다른 개인적인 기도는 전자보다 격식에서 완화된 형태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잘 보이며, 우리가 배운 것들을 모두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에 설 때, 걸어갈 때, 차를 운전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는 친구와 원수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곳에서의 보호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으로 또는 소리내어서 혹은 마음속으로 순간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마음과 입술에 항상 정직한 기도를 지니는 자가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대체로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해야 하며, 어떤 직업을 택하여야 하며, 어디에서 살 것이며, 누구와 결혼 기

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처럼 전혀 수고하지 않고 답을 얻으려 하는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교성 9: 7-9)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는 자주 언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응답에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벽에 글씨가 새겨지거나 천사나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도 불합리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버려 여기지 말며 구해서는 안될 것을 구하지 말라.”(교성 8: 10)

신앙에는 수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도록 도와 주시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간구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지식을 달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서 주님께 보호를 요청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서 주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약 2: 20 참조)

여러분 가운데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더 정규적으로, 좀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이 그토록 귀중하고, 인생이 그토록 짧아서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그토록 약해서입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만한 관원처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기도하십니까? (눅 18: 11-13 참조)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내어 놓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덕을 보이려 합니까? 여러분의 죄를 감추고 선을 강조하십니까, 아니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자비를 구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얻습니까?

얻지 못한다면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몇 마디의 틀에 박힌 기도문을 매일 반복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절실하게 말씀드립니다까? 여러분은 정규적으로 자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말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듣기도 합니까?

구세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차별이거나 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가 우리와 함께 먹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 기도에도 응답을 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파악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지 방법을 아십니까? 주님은 서서 문을 두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는 자주 언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응답에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벽에 글씨가 새겨지거나

천사나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고 계십니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면 떨어진 쪽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해야만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청각을 둔화시켰거나 시력을 감퇴시켰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가깝게 계시다고 느끼며 그분의 따뜻한

영적인 영향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 같은 느낌을 왜 늘 느끼지 못할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답은 자네에게 있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화평과 안정의 영을 잃었다면 다시 그것을 찾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니파이의 형제들이 처했던 상태에 때때로 빠지게 됩니까? 니파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시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니일 17:45)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적인 장막이 우리를 점점 크게 둘러싸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침 영국 해협을 건너려는 수영 선수가 온몸에 바르는 기름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름막은 냉기의 침투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온몸의 땀구멍과 피부를 완전히 덮어 씌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껍질을 부수고 벗겨벗은 영혼과 진실한 헌신과 깨끗케 된 생활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섰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벧후 1:4-9 참조)

여러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면 구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길가의 문둥병자들과 같습니까? (눅 17:12-13 참조)

공식 석상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거리 보통이나 회당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나 외식하는 자들과 같아서 안됩니다. (마 6:5 참조)

우리는 모두 주님께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완전이 이른 자는 없습니다.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순결의 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십일조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해의 왕국의 결혼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중에 한량없는 빛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노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많이 그러하듯이 그도 탈선해 있었습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거운 죄를 범하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나의 죄 사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 하노니,” 상황은 극적이며 그의 말씀은 인상적입니다.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그는 짐승 한 마리도 쏘거나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팔을 뻗쳐 문을 두드리고 구하여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마른 황무지 너머로 아름다운 계곡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잡초 투성이의 들판에 살았으나 이제 그는 비옥한 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합니다.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

기억은 냉혹하며 친절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그려 주었던 그림이 이제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따스함과 영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상은 자신의 추한 과거에 대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추잡한 것들이 되살아 나는 것에 몸서리를 쳤으나 이제는 더 나은 것을 열망하였습니다. 거듭남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우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굶주림을 느껴”

회개의 영이 찾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법을 뉘우쳤고, 죄로 웅어리진 옛 자신을 문어버리고 신앙과 의의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여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이제 그는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반드시 씻고, 얼룩이 지워지고, 상처에는 새로운 살이 덮여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화 과정을 통하여 새 사람에게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생각과 신체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이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며, 틀에 박힌 상투적 기도도 아니며 순간의 간구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초가 분으로 바뀌고, 분이 시간으로 바뀌어, 시간은 “하루종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졌는 데도 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요, 용서 또한 값없이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구속주와 대화를 하고 그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기에 그는 쉬지 않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여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이노스 1:2-4 참조)

이처럼 지치지 않고 간구하는 자를 구속주께서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얼마나 이처럼 간구해 오셨습니까? 중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지 않았거나 여러분 중에 여러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섯 시간 동안 기도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시간 동안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30분 동안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10분 동안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고립된 깊은 숲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굶주림을 느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절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창조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고자 얼마나 오랫동안 간구하였습니까? 하루 종일 하였습니까?

어둠이 덮일 때에도 계속 소리를 높여 간구하였습니까, 아니면 상투적인 말로써 기도를 마쳤습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싸우며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진실하게 성약을 맺을 때 주하나님의 음성이 이노스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실 것입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로다.”(이노스 1:5)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듣고, 또 어떤 이는 천둥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모든 가식이나 체면이나 위선이나 오만을 벗어 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는 늘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의 부족함, 한계성, 나약함, 지혜의 결핍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해야 하며,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고서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 축복을 구하고서 응답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아시오니 제가 그것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

위임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위임하지 않는 방법: 가정과 교회를 위한 제언

윌리엄 지 라이어



지도력 원리 중 위임보다 더 광범위하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원리는 없다. 지나치게 많은 임무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대하여 흔히, “그는 더 많은 일을 위임해야 해.”라고 하거나, “그 여자는 왜 위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을까?”라고들 한다. 위임이란, 일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그 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이 위임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라면 위임이 즉각 자기에게 더 많은 자유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효율적인 위임은 결과적으로 지도자에게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지만, 단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위임은 오히려 지도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강요한다.

1. **임무 지명** 임무 지명은 단 한번에 주어지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단일적인 일을 말한다. 맡음을 하는 것, 공과의 일부분을 발표하는 것, 심부름 등은 임무 지명의 일례이다. 열 여섯 살 된 아들을 조기 농구 연습장에 데려다 주어야 했었다. 나는 그 아이의 형에게 나 대신 그를 연습장에까지 자동차로 데려다 주고 오라고 부탁하였다. 이것은 단 하루, 단 한번 일에서 나를 쉬게 해준 위임된 임무 지명이었다.

임무 지명이 단 한번의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데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임무 지명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 훈련 그라고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2. **과제** 과제는 많은 기술을 요하는 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일련의 일의

집합을 말하나, 이것 역시 지속적인 성격의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감독님이 대제사 그룹 지도자에게 와드 잔치 모임 준비에 대한 과제를 위임한 일이 있었다. 이 과제에는 음식, 식탁, 장식, 음식 접대 및 프로그램 등등의 임무 지명이 포함된다. 정원회 지도자는 다시 이상의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부모는 과제 전반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이부자리를 개거라.” “이것을 이웃 집에 갖다 주어라.” “네 옷을 챙겨라.” “쓰레기를 치워라.” “설거지를 하라.” 등과 같은 작은 일을 시키는 것은 가정의 밤 활동 계획, 주례 식, 주간의 식단 짜기, 또는 식품 비, 가정 등등과 같은 큰 과제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다.

잘 위임된 과제라면 책임이 부여된 사람에게 훌륭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전담 업무 전담 업무란 단 한번으로 그치게 되는 임무 지명이나 과제와는 달리, 끝없이 계속되는 복잡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위임된 전담 업무는 특정한 직책 또는 부름의 일부분일 수 있다. 스테이크 부장은 어떤 특정한 복지 농장 활동에 대한 책임을 특정한 고등평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독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임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청남 또는 청녀 프로그램,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 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등에 대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전담 업무란, 어떤 특정한 부름이나 직책의 일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위임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아버지는 딸들에게 가족용 자동차를 잘 수리하고 보살피는 책임을 맡겼다. 10대 딸에게는 아침 일찍 가족을 깨워 경전 읽기와 기도 시간에 식구들을 함께 모으는 책임을 맡겼다. 어떤 가정에서는 집안 청소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가족에게 일정한 구역을 담당케 하여 맡은 구역을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위임한다.

전담 업무의 경우 일을 맡은 사람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되며 지도자나 부모의 짐을 덜어 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에 지도자 스스로가 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도 한다.

왜 지도자가 위임하거나 위임하지 않는가?

지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커다란 이유에서 일을 위임한다. (1) 그 일을 처리할 시간, 기술, 또는 다른 자료가 부족하거나, (2) 특별한 책임과 활동을 통하셔서만 성장이 가능한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한다.

반면에, 많은 지도자들이 위임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해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2) 지도자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3) 어떤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였다가 그 사람이 정해진 때에 “바르게” 일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일을 그르치고 만다. (4) 때때로 위임한 일이 많은 문제와 시간을 요하게 되어 위임

받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

효율적인 위임을 막는 장애물 제거

위임에 따르는 난관은 극복될 수 있다. 다음의 제언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의욕을 돋구는 일을 맡긴다. 때때로 지도자들은 어렵고 지루하며 재미없는 일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편한 일은 스스로 맡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자주 일이 진전하거나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없게 되며, 곧 그 일에 대하여 불만과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 자녀에게 항상 가정의 밥이 끝난 후에 설거지를 하는 일만을 위임시키고 공과를 가르치는 일이나, 활동을 선택하는 일, 후식을 마련하는 일 등의 기회는 전혀 주지 않는다면 그는 곧 불만을 느끼게 된다. 현명한 교회 또는 가정의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위임된 일을 살펴보아 사람들이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기대하는 결과를 명백하게 설명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역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게 된다. 어떤 어머니가 딸에게 가족을 위한 식료품 장보기를 위임하여 딸이 이를 잘못 수행했을 때라도 어머니가 가족의 식성, 영양 및 음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어머니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장보기의 중요성,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 장보기를 할 시기, 구입해야 할 상품의 질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분명하게 이해시키지 못하였을 때, 딸은 본의 아니게 어머니나 가

족의 기대를 그르치게 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게 된다.

3. 필요에 따라 훈련시킨다. 때때로 새로운 업무 분야가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극히 생소한 것이어서 당장 상당한 수준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적당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권 소유자에게 가정 복음 교육의 책임을 위임할 때

위임이란 결코 일을 더는 것이 아니다.

위임이란 지도력의 한 비법이며

그것은 지도자가 궁극적으로

일정한 활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업분야에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되는

보다 큰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분명하고 적합한 훈련을 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설명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어떻게 해야 가정 복음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가르치는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준비가 없이는 가정 복음 교사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낙담을 주게 되며 정원회 지도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4. 확인. 일이 위임된 후에 지도자는

중중 자기는 뒷전에 물러서서 쉬기만 하면 일이 잘 되어 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는 한 그 일이 잘 수행될 수는 없다. 이 확인 프로그램에는 정기적으로 현재 까지의 진행된 일을 검토하고, 결과를 평가하며, 계획을 수정하고, 약간의 부수적인 표현이나 교육을 시키는 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확인이란 항상 일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진행 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까지를 뜻한다.

예를 들면, 교사 정원회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정원회 파티와 음식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을 때, 정원회 고문은 우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특정 임무를 완수해야 할 날짜와 보고해야 할 날짜를 정해 주어야 한다. 그는 파티가 있는 날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그날에 갑자기 모든 사람을 불러서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는 안된다. 임무 지명의 과정에 사람들의 활기를 돌리고 재지시를 하는 등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실패하고 만다. 또한 확인 과정이 결여되어 있을 때,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지도자가 그 계획에 대하여 흥미를 잃었거나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 스스로도 흥미를 잃게 되고 만다.

5. 일을 일임한다. 지도자로서는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지시하고 훈련시키고, 확인하되, 임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마치 지도자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한 것과 똑같이 일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지도자는 위임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들의 기술, 개성, 스타일, 경험 등

을 바탕으로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맡겨 두어야 한다.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일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하여 지시되고 감시받으며 제약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크게 낙망하게 된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그 일에 주입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결과는 마땅히 기대되어야 하고 허용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하여 칭찬까지도 해주어야 한다. 다행히 위임받은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전하게 된다면 그는 지도자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상호부조회 회장은 모임의 사회나 다른 업무의 관리를 위임받은 보좌가 회장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회장이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한다면 그 보좌의 방식은 회장의 것과 같은 효율을 거두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장이 보좌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지나치게 확인하며 주변에서 간섭할 때 보좌는 소신껏 수행하기를 주저하게 되며 결코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위임이란 결코 일을 더는 것이 아니다. 위임이란 지도력의 한 비법이며, 그것은 지도자가,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활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되는 보다 큰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위임이란 중요한 계획의 결과이며, 거기에 포함되는 것, 적당한 훈련, 확인, 그리고 기꺼이 일임하는 것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의 결과이다. *

여러 개의 음성

시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

로버트 알 본

때 때로 우리는 수많은 음성이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음성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 그들이 권고하는 일은 바람직하며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가?

“교회 부름에 결코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여성은 여러 가지 뜻있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공하라.”

“훌륭한 이웃이 되라.”

“정치 활동 또는 사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어머니로서의 임무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가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라.”

“교회 부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라.”

“모든 면에서 극단적으로 되는 것을 피하라……그리고 가족과 교회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문제는 현실적인 말일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가족, 교회, 직장 및 지역 사회로부터 그렇게 많은 음성이 들려오고 또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



겠는가 하는 것이다.

각 기한의 목적

“천하에 법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전 3:1) 이 교훈은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합당한 교훈이다.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살려고 노력할 때 불행이 따른다.

예컨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중동적인 향학열과 학창 시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대학으로 뛰어들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 또한 십대의 어린 소녀가 너무 일찍 결혼하여 중등 교육도 마치기 전에 모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슬픈 일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은 그 사람이 걷고 있는 인생의 모습에 따라 크게 다르다. 우리 인생의 각 기한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며, 합당한 때에 각 기한의 목적을 경험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게 된다.

우선 순위 결정

특정한 때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두 개의 “바른” 원리가 대응될 때—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교회 부름을 수행하는 것—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상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상황에서는 바른 일이, 다른 상황에서는 합당치 못할 수 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이 특정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관심과 주의를 요하는 자녀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은 특정한 교회 책임보다 우

선 순위가 위로 놓이게 된다. 이와는 달리, 와드 회원의 영적인 복지 문제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축구 시합을 아들과 함께 보는 것보다 우선 순위가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단 한 개의 해답을 노리는 “가족이 우선이나, 교회가 우선이나?” 라는 질문은 사실 그릇된 질문이다. 가족과 교회는 모두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우선이 될 수 있다. 두 가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우리의 가장 큰 개인적 필요 사항의 하나는 우리 각 사람이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약속된 것처럼 영에 의하여 생활하기를 배워서 우리가 각 기한 또는 상황에 대하여 세우는 우선 순위가 타당하고 주님께 기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여러 음성으로 우리는 곧잘 낙담하고 자신에게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라고 묻게 된다. 요구에 직면하여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음성들로부터 탈피하려 하지 말고 현실과 마주 서서 그때 그때를 행복하게 생활할 때에 끝나게 될 것이다.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을 때,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페달을 밟지 않을 때, 그는 균형을 잃게 되어 넘어지게 된다.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활동하지 않고 주저

앞아서 여러 가지의 요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자기 동정에 빠지게 되고, 앞길이 캄캄하다고 느끼게 된다. 반면에 움직이고 활동할 때,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은 생산적인 것이 되고 뜻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합창 지휘자”의 원리

우리 생활에서 조화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갖가지 요구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합창단 지휘자들에 들어 보자. 훌륭한 합창단은 엘토,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등의 소리를 내는 여러 음성을 갖고 있다. 합창 단원 작자가 모두 훌륭한 성악가라 할지라도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크게 부른다면 그 결과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소음이 될 것이다. 지휘자가 합창 단원 하나하나에게 바른 시간에 적당한 음향과 표현으로 노래부르도록 도움을 줄 때 합창단은 아름다운 합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휘자는 각 단원의 특수한 취향을 잘 통제함으로써 혼란을 균형잡힌 아름다운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갖가지 “요구의 음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계보, 가정 복음 교육, 선교 사업, 복지 임무, 신전 사업, 모임, 지역 사회의 책임, 이웃, 직업 등등에서의 요구의 음성이 많이 있다. 주님이 이 모든 음성—그것들은 모두 훌륭한 것이다—을 제각기 좋아하되 찬송을 멋대로 크게 소리 내도록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휘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교성 58 : 28) 그 결과가 불협화음인지 또는 균형잡히고 잘 조화된 음악인지는 우리가 자기 다른 음성을 올바른 때와 장소에 적절하게 통제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영감을 받아 균형을 통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야 하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의 어깨에 놓여 있다.

총정리

“수많은 음성이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일생 동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얻어 우선 순위를 정하여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의 자기 적절한 때와 기한에 따라 우리의 생애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 보다는 우리가 기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교성 58 : 27)함으로써 인생의 균형을 찾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낙담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일생이 잘 조화된 찬송이 되느냐 시끄러운 소음이 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음성을 적절하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의 구체적인 특정한 상황에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행복이라고 정의한 “우리 존재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

보상받은 인내

엘리사 제이 폴슨

사람들을 인도하기에 앞서 먼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리차드 베이 로우가 15년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침례받고 들어온 이래로 그의 생애를 다스렸던 좌우명이다. 로우 형제는 흑인으로서 당시에 신권에 성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침례받았다.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배우는 동안 그는 물론 신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며, 그것에 대하여 기도를 드렸다. 어느날 밤, 잠이 든 후 그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설교단에 섰으며 그의 앞에 오래 된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

다. 종이는 두루마리처럼 보였고, 글씨는 매우 희미하였다. 그 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다. “흑인은 지금은 신권을 소유할 수 없느니라.”

그는 그의 앞에 커다란 장막에 드리워진 것을 보았으며, 세 사람이 장막 저편에서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흑인은 안 됩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그의 마음에 대답이 왔다. “지금은 안 된다.”

그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책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곳에도 그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 있었다. “먼저 진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네게 임하리라.”

이와 같은 직접적인 재확인을 받아 로우 형제는 침례를 받게 되었다. 그는 가정에서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고 가족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가정에서 축복사로서 자신의 관리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그는 신권의 권능과 신권 지도자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자주 그들을 불러 그의 아내와 자녀에게 축복을 줄 것을 청하였다. 그는 그의 생애에서 병고치는 신권의 권능을 체험하였다.

그가 베트남에서 종군하고 있을 때, 그에게 뇌종양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는 곧 오키나와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수술받기 전날 밤 그는 교회 장로들로부터 기쁨 축복을 받았다. 그에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다. 그는 수술 결과에 대하여 조금도의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수술 후 약간의 통증만을 느꼈을 뿐이다. 그리고 병원의 진료진들이 놀랄 정도로 빨리 그는 보고, 듣고, 침대에 앉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의 주치의가 이렇게 진단하였다. “당신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을 가지고 있었습시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은 그가 1978년 2월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을 때였다. 로우 형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다. “복천년 이전에 아니라면, 복천년에는 형제가 하나님의 신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 이 약속이 실현되리라 믿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이 것처럼 빨리 실현되리라 믿는 꿈

도 꾸지 않았었다.

1978년 6월 9일, 토요일 오후, 그가 그의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전화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아내의 음성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내가 말하였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합당한 남자라면 누구든지 신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똑바로 알려 주었다. 바로 그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그의 친구인 회원 한 사람과 구도자 한 사람이 그의 책상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들도 역시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는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친구에게 소식을 전해 주려고 온 것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로우 형제는 다음 일요일에 신권을 받았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로버트 디헤일즈 장로로부터 장로 직분에 성임되었다.

워싱턴 신전 헌납이 있기 전에 로우 형제 가족은 신전 건물을 구경하면서 그것이 그들 생애에 있어서 신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로우 형제 가족은 다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가족이 모두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되기 위해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로우 형제와 자매에게는 10세의 로버트, 9세의 레유니, 8세의 칼라가 등의 입양한 세 자녀가 있었다. 그 소식에 대한 로버트의 반응은 분명하였다. “아빠, 저는 은행으로 가야겠어요.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저축을 시작해야지요. 1불만 주시겠어요?” *



낭비한 우표

로나 버벳트

도리스는 비활동 회원 명단에 있는 이름의 하나였다. 그녀가 교회에 참석한 것이 너무나 오래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와드 초등학교 회장으로서는 나는 계속 그녀의 네 자녀에게 초등학교에 나오도록 초청 편지를 보냈었으나 번번이 우표를 허비한 결과만 되풀이 되었다.

그녀의 거주지도 문제가 되기는 했다. 그녀는 뉴욕주에 있는 우리 조그마한 와드로부터 백 팔십리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그녀의 지역에서는 그녀가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사실 그녀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가정 복음 교사나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의 방문을 받은 지가 오래 된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자녀를 초등학교로 보내라는 초청 편지를 계속 보냈고, 그들의 생일에는 카드를 보냈고, 어느 정도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마음으로 늘 기도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도리스에게 새로운 방문 교사가 임명되었다. 이 방문 교사는 도리스를 방문하기 위하여 왕복 삼백 육십리 길을 여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적어

도 한 달에 한번씩 도리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와드 신문을 보내 주기로 작정하였다.

마침내 편지와 카드는 효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도리스가 그녀의 새로운 방문 교사에게 답장을 보내 왔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자매님께서 저를 여전히 교회 회원으로 여겨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5년 이상을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물론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신 교류가 시작되었다. 매달 방문 교사는 도리스에게 편지와 와드 신문을 보냈다. 거의 매달 도리스는 답장을 보내 왔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상호부조회에는 두 명의 새로운 얼굴이 보였다. 도리스와 그녀의 이웃 사람이었다. 도리스는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에 사는 비회원 친구에게 교회까지 왕복 삼백 육십리의 여행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었다.

늘 대면해서 살던 사람처럼 느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하였다. 그녀는 구세주의 사랑과 교회의 진실함에 대한 큰 신앙을 말하였다. 도임

이 끝난 후 나는 결국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나는 감독의 승인을 얻어 도리스를 교사로 하는 가정초등학교를 조직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나의 보좌와 내가 나의 차거운 조그만 자동차에 올라 낮선 시골길을 몰고 가던 날은 눈이 오는 뉴잉글랜드 지방의 겨울이었다. 군데 군데 길이 나뉘어서 우리는 모두 속으로 이 여행을 다른 날로 미뤄버려야 할 것 같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리스는 참으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로 하였다.

우리가 받은 보상은 충분했다. 우리가 도리스의 아늑한 집에 들어가 앉자 그녀는 말문을 열었다. 선교사들이 5년 전에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처음부터 복음의 메시지에 기뻐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흥미를 갖지 않았으나 그녀에게 침례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다가 어려운 고비가 닥치게 되었다. 그녀는 교회에서 백 팔십리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근처에는 회원이란 아무도 없으며 그녀는 운전을 할 줄 몰랐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가정복음교사나 방문교사가 그녀의 집을 방문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생애에서 어느 것보다도 견줄 수 없는 축복이라고 느꼈으나 그녀는 그 간증을 키워 나갈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얼마 안가서 이해심이 많은 감독은 그녀의 필요 사항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의 쌍둥이 자녀는 이제 만 세 살이 되었다. —유년 주일학교 연령이다. — 그래

서 감독은 그녀에게 주일학교 제3반 교재를 가져다 주었다. 교회까지 먼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교회를 가질 수는 있었다. 그녀는 자녀에게 자기가 배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르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녀를 가르쳤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5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녀는 네 자녀를 모아서 해마다 똑같은 제3반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다. 그들은 같은 공과 교재로 다섯 번을 되풀이해서 배운 것이었다.

방문교사가 그녀에게 와드가 아직도 그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을 때 그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내가 가져간 새로운 공과 교재와 안내자판 것발과 훈련 비행사 반 반지를 받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이제는 도리스의 상황이 바뀌었다. 그녀의 집 근처에 지부가 세워졌으며, 그 지역에도 새로운 회원들이 살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매 주일마다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지부 때문에 도리스와 그녀의 가족의 회원 기록은 우리 와드로부터 이전되었다. 우리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으나, 나는 우리 와드의 비활동 자녀의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리스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얼마나 많은 형제와 자매와 어린이들이 우리의 작은 수고로 활동화될 수 있겠는가?

도리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표값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는가? *

바로 저분입니다.
말하세요.



브르솅 씨, 헤이튼

내가 약 1년간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나는 킬러 장로라는 새로 부름받은 장로와 함께 일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스텐더드들을 개종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나는 다른 도시에서 있는 모임에 부름을 받았고, 나의 이 새로운 동반자를 남겨 두고 떠나야 했는데 나의 동반자는 또 다른 경험이 없는 선교사와 잠정적으로 동반자가 되어 일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대신 나는 그의 동반자와 함께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그에게 전날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함박웃음을 웃으면서 분명히 교회에 개종할 한 가족을 찾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선교 지역에서는 전 가족은 고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나는 좀더 자세히 말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족의 이름이나 주소를 적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큰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 층에 살고 있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간 것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가 독일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 준 여자와 몇 마디 나누지 못하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우리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장에 그녀를 찾아서 내가 그녀에게 이야기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교회에 입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나서 다만 그를 만족시켜 주겠다는 생각으로 그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는 어떤 길인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럴 듯하다고 여겨지는 길을 택하여 끝도 없는 듯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낙담의 한 시간이 지난 후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의 여러 달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더 이상 그녀를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관용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

서는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의 아랫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이튼 장로, 나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선교 사업을 나섰습니다. 영이 나에게 그녀가 교회 회원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교훈을 하나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경주를 하듯 그와 함께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지쳐 넘어질 정도였고 나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길러 장로, 이만하면 됐어?” “아니요” “그녀를 찾아야 해요.” 나는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만 두자고 말할 때까지 그를 부러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도 내 뜻을 알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긴 계단의 맨 꼭대기에서 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러 나왔습니다. 그는 나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면서 자랑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장로님, 저 여자예요. 말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녀의 남편은 나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유타에 온 것입니다. 그는 만타임 와드의 감독인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은 교회의 중견 회원입니다. 그것은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오는 회의주의의 한계성을 꼬집어 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하늘로부터의 속삭임에 귀를 막고 서 있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길가의 사람들

오 모델 클라크

우리는 1937년 가을에 옥든 제4와드 구역으로 이사했다. 나는 가정 복음 교사로써(당시에는 와드 교사) 열 개의 아파트로 개조된 낡은 집을 지명받았다.

12월의 어느 날 밤, 와드 가정 복음 교육 방문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트레일러 하우스(자동차가 끌고 다니는 집)에 눈길이 쏠렸다. 그 집이 와드 방문 교육 구역에 포함된 것인지 확실히 모르는 나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방문을 받아 보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했다.

푸른 눈에 금발 머리를 한 여자가 문을 열어 주었고 자기들은 말일성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가족이 최근에 캔자스에서 이사왔다고 했다. 나는 잠깐 와드 방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반응이 무척 우호적이어서 나는 간략하게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헌과 물몬경의 이야기를 전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물몬경이 있으면 읽어 보겠느냐고 물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처음에는 책을 빌려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여인, 맥신 프로츠먼과 그녀의 남편,

풀에게 선물로 주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나는 표지 안쪽에 물몬경을 공부하도록 몇 마디 격려의 말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는 그 책을 프로츠먼의 집으로 가져 갔다.

얼마 후에 나의 담당 구역은 바뀌었고 몇 년인가 지나버렸다. 그리고 프로츠먼의 일은 나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내가 그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였다. 아내와 함께 무도회에 갔을 때였다. 중간 휴식 시간에 나는 한 금발의 여인이 내 아내를 가까이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저를 잘 모르시지요?” 아내는 대답했다. “네,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당신의 남편을 알아요.” 그녀는 계속했다. “그 분이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가져다 준 분이지요.”

내가 얼른 가로막았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부인을 전에 뵈 기억이 전혀...”

“모델 클라크씨가 아니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예, 그렇습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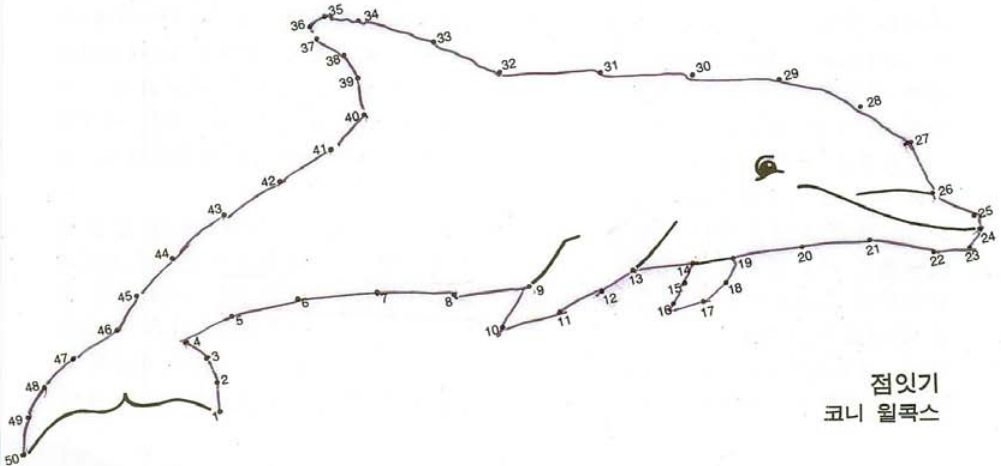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물몬경을 볼 때마다 형제님의 이름을 보게 되지요. 또한 형제님이 인용하신 물몬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도 보게 되지요. 바로 형제님이 인용해 주신 말씀이지요.”

나는 와드 방문 교육과 그 트레일러 하우스와 프로츠먼 가족을 기억해 냈다. 그들은 내가 전해 준 물몬경을 읽었고, 와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그 가족은 교회에 입교한 것이었다. 후에 그들은 북부 옥든으로 집을 짓고 이사하여 소속 와드에서 아주 활동적인 회원이 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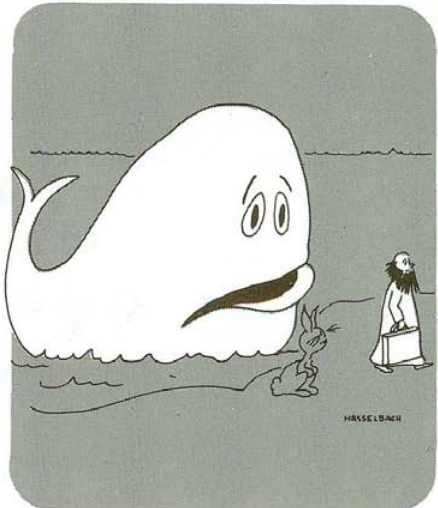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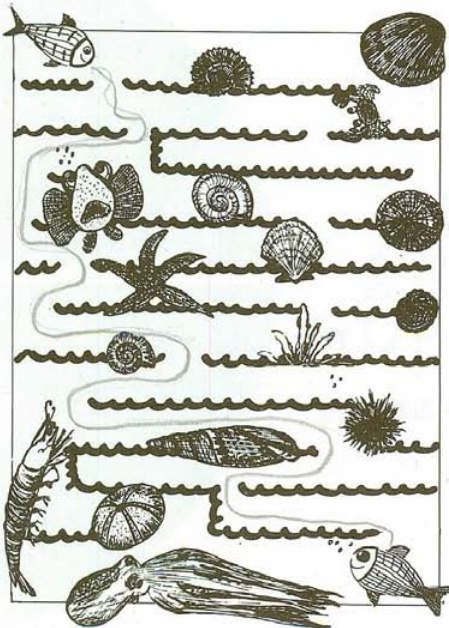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킨 시초는 몇 발자국의 여분의 수고였다. 나를 그 집 문앞으로 인도한 영의 속삭임과 물몬경에 대한 간증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이다. *



심심풀이



점잇기
코니 윌콕스



아기 물고기가 안전하게
엄마 물고기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매우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여, 복음이 온전히 지상에 회복된 이 특별한 시대에 살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며 지상에 살았던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를 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릇된 것을 택하도록 유혹할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도 사탄의 심부름꾼이 있어서 우리에

게 악을 가르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혹받고 또 잘못을 범할 때, 보다 잘 행하고 보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와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능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하고 자유롭게 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일 15 : 34 참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의 원리를 나눔으로써 복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일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잘 활용할 때 기술을 배우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읽고, 텔레비전을 통하여 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하여 듣고 읽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높여 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다 훌륭하게 행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음악과 책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활동이나 친구를 택할

때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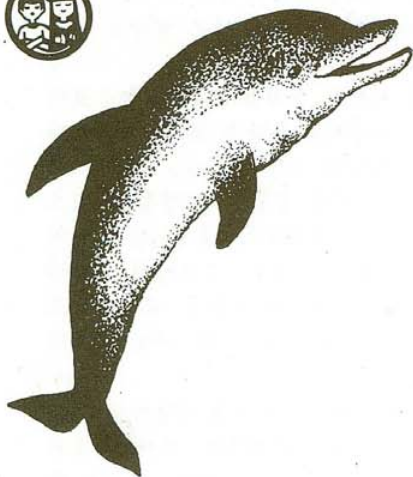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나누며, 그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여러분의 생활 방법을 따를 수 있게 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보이십시오.

구세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세주께서 어린이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니삼 17:16) 기도가 끝난 후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각각 축복하시고 또 우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구세주의 깊은 사랑과 크신 관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야시기를 바라며, 우리도 또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신 구세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기원합니다. *

J. J. Kim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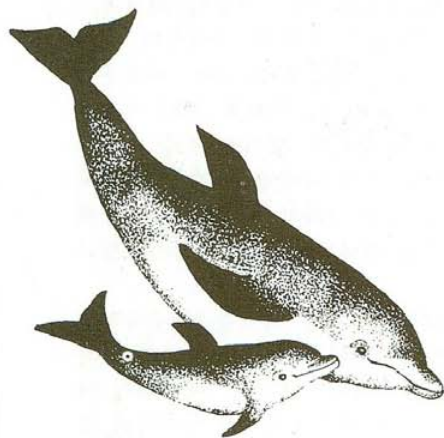
만능 돌고래

존 안드레 무어

와! 머리에 콧구멍 하나밖에 없는 동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돌고래는 물개처럼 지느러미 모양의 앞발과 상어처럼 큰 뒷지느러미를 가졌으며, 고래처럼 큰 꼬리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돌고래는 물고기류가 아니라, 황소나 돼지나 말과 같은 포유 동물이다.

그런데도 돌고래의 집은 바다속이다. 돌고래는 물속 나라에서 편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상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결 속에서도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돌고래의 피부에는 털이 없고 미끄러운 피부를 지니고 있다. 돌고래는 물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속에서도 잘 볼 수 있으며, 두 개의 바늘 구멍만한 귀로 상당히 잘 듣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돌고래 아래턱 안에 특수한 청각 기관이 있어서 그곳으로 듣는다고 믿고 있다. 돌고래의 100개의 작고 날카로운 치아는 방심한 물고기를 잡아서 통채로 먹는데 이상적이다. 지느러미 모양의 앞발과 꼬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준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돌고래의 머리 위에 숨구멍이 있어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듯이 그곳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이다. 돌고래가 깊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작은 근육을 움츠려서 숨구멍을 막게 된다. 일반적으로 돌고래는 숨을 쉬기 위하여 30초마다 물 위로 머리를 내밀게 된다. 그러나 물속에서 7분 정도는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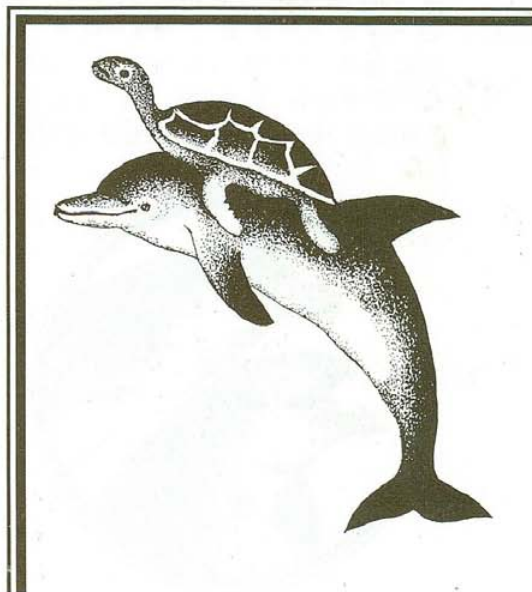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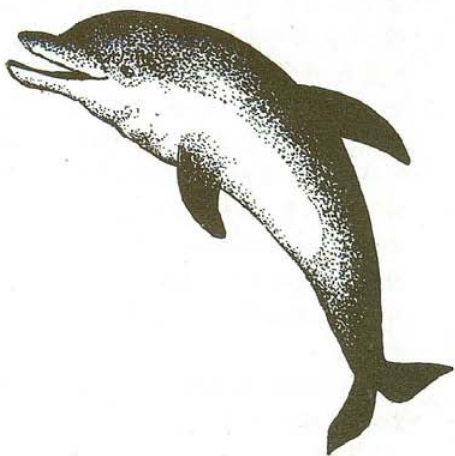


틸 수 있다. 돌고래의 가정 생활은 인간의 가족 생활 만큼이나 친밀하고 재미있다. 송아지나 망아지처럼 갓 태어난 돌고래도 스스로 보고, 듣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아기 돌고래가 태어날 때 대개 “고모 또는 이모”가 돌고래의 출산을 돕게 된다. 아기 돌고래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곧 바다 표면으로 올라가서 첫번째 세상의 공기를 호흡한다. 그러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엄마 돌고래나 이모 돌고래가 밀어 올려 주어서 최초의 숨쉬기를 하게 한다. 아기 돌고래는 1년 이상을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슬하에서 자라게 된다.

돌고래 가족은 대가족의 무리를 지어 여행하기도 한다. 상어나 살인 고래 등의 위협이 올 때, 돌고래 가족은 아기 돌고래들을 가운데로 놓고 둘러 싸서 어린 돌고래를 보호한다. 부모 돌고래는 적을 물어 뜯거나 머리로 받거나 꼬리로 치며 적과 싸운다.

돌고래는 서로를 무척이나 위한다. 그들은 대가족 무리 사이에 긴밀한 우애를 이루고 있어서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곤경에 빠진 돌고래가 있으면 서로 서로 돕는다. 그들은 인간이 가족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듯이 돌고래 가족을 염려와 걱정으로 돌본다.

또한 여러 어린이들이 놀기를 좋아하듯이 어린 돌고래는 놀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물고기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따라다니는 등 바다속의 생물들을 즐겁



게 놀리기를 좋아한다. 꼭에는 돌고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배 위에서 돌고래가 재주를 넘는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돌고래가 발명한 놀이이다. 예를 들면, 돌고래는 커다란 바다 거북이를 등에 태워 주고는 멀리까지 떼려가 버리는 것이다. 놀이가 지나치게 거칠어지면 아버지 돌고래가 와서 어린 돌고래의 궁둥이를 이로 때려준다.

양어장에서 길들여진 돌고래는 온갖 종류의 진기한 재주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두뇌가 인간의 두뇌의 크기와 비슷한 이 돌고래는 고리 통과하기, 막대 넘기 등의 재주를 배운다. 그들은 농구를 할 수 있고, 때때로 두 개의 바구니를 일렬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돌고래가 쉽게 경기를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상당히 높은 지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밖의 여러 가지 돌고래의 신기한 재능은 돌고래가 모든 동물 가운데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임을 증명해

준다. 돌고래는 숨구멍에서 나오는 끼득거리는 소리로써 다른 돌고래와 대화를 나눈다. 인간의 귀에는 빠져거리는 문 여닫는 소리처럼 일률적으로 들리는 소리이지마는 돌고래는 그 각각의 소리를 분별하여 알아 듣는 것이다. 이러한 소리는 물을 통하여 전파되어 바위나 배나 물고기나 적 등의 물체에 부딪쳐서 다시 돌고래에게 반향되어 온다. 이와 같은 반향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메아리라고 말한다. 돌고래는 그러한 메아리를 물속에서 들으며, 그 메아리로써 그 물체가 무엇이며, 얼마나 크고, 어떤 모양이며,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음파 탐지라고 한다.

시끄러운 돌고래의 언어에는 끊임없는 다양성이 있다. 휘파람을 불고 짖어대고, 신음하며, 음음거리고, 통곡하며 때로는 벤조 소리까지도 낸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말”이 실질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돌고래의 각기 다른 소리에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 언어에 이름을 붙여 돌고래어라고 부른다. 돌고래 전문가인 존 릴리 박사는 이 흥미로운 생물에 대하여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돌고래어를 연구하고 있다.

고대 회람의 동화에는 돌고래와 어린이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오늘날에도 뉴질랜드의 어느 어린 소녀는 오포라는 이름의 돌고래 친구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만능 돌고래에 대한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돌고래를 좋아하는 것처럼 돌고래도 우리를 좋아한다는 점일 것이다. *



아이슬랜드에서 물오리들이 보금자리를 찾는 때였다. 존 안넬슨과 여동생 안나 안넬스도티어는 집 밖 강가에 나와서 떠다니는 멋진 물오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슬랜드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듯이 그들도 물오리를 보는 것을 좋아하였다.

“오리들이 우리집 둑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잘 돌봐 줄텐데.” 라고 존이 말하였다.

“그러면 그곳에 집을 짓고 알도 낳겠지.” 안나가 덧붙였다.

존이 말하였다. “그리고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자기 가슴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털을 뽑아서 보금 자리 밑에 깔거야.”

“제발 오리가 우리 둑에서 살게 되면 좋겠다.” 안나는 간절히 바라는 듯이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계셨다. 바늘이 어머니 무릎에 있는 화려한 천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였다. “곧 완성될게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물오리 털이 있어서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년 겨울에 너희들이 따뜻하게 지

털목도리

도로서 에스 앤더슨



낼 수 있을텐데 말이다.”

안나가 문가로 뛰어갔다.

“이리 와서 우리집 마당에 등우리를 치렴!” 안나는 날아다니는 물오리 벼에게 말하였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남은 헝겊 조각을 건네 주었다. “이 화려한 헝겊을 마당에 달아 매거라. 새들이 이런 것을 보고 오게 된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었다.

존과 안나는 옷감을 찢어서 나무와 바위 위에 달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창문으로 그 헝겊 조각들이 새의 주의를 끄는지를 보고 있었다.

“밖에 나가서 아빠에게서 나무 토막을 얻어다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조각이나 만들어 보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뭐 만들거야?” 안나가 존에게 물었다.

“나도 몰라.” 존이 대답했다.

물오리들은 집 위로 날아다녔다. 갑자기 한 쌍이 내려오더니 강가에 앉았다. 존과 안나는 숨을 죽였고, 엄마도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다. 오리가 그 근처에서 안식처를 찾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었다. 그들은 물오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고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새를 잡거나 해치지 않기 때문이었다. 존과 안나는 여러 마리의 물오리가 나무 토막있는 데로 다가왔다가는 흩어져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았다.

안나는 실망하였다. “처음에는 나무 토막에 흥미가 있는 것처럼 굴더니만, 왜 날아가 버리는거지?”

안나의 말을 듣고 존은 좋은 착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신이 났다. 마침내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였다. “이제 이 나무 토막으로 내가 무얼 만들어야 할지를 생각해 냈어! 이 나무로 물오리의 친구를 만들어야겠어!”

안나는 영문을 몰라 하며 바라보았다.

“물오리가 처음에는 나무 토막을 물오리로 생각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멈춘 것이지. 우리가 물오리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올지도 몰라.”

“그래! 물오리가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놓자.” 라며 안나가 소리쳤다. “지붕 꼭대기에 놓으렴.” 엄마가 제의 하였다.

그리하여 존과 안나는 나무로 물오리를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는 칠까지 예쁘게 하였다. 아버지가 나무 오리를 지붕 위에 올려 놓아 주었다.

곧 몇 마리의 오리가 지붕 위에 오리를 보고 와서는 강둑에 등우리를 만들었다. 엄마 새는 여러 개의 알을 낳고 등우리 안을 부드러운 물오리 털로 깔았다. 후에 존과 안나가 모으기에 충분한 털이 있게 되었다.

마침내 엄마 새는 알을 낳고, 토실토실한 새끼 오리들은 존과 안나를 쫓아 다니면서 모이를 쪼아 먹었다.

마침내 물오리가 떠나가게 되었을 때 존과 안나는 슬펐다.

그러나 물오리는 오리 털로 가득 채워진 등우리를 남기고 떠났다. 그 털을 모두 모아서 엄마는 손수 만든 털목도리의 안에 넣었다.

겨우 내내 존과 안나는 따뜻한 털목도리를 두르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것처럼 따스함을 준 고마운 오리를 생각하였다. *

겸손과 존귀와 위엄으로

리 아더 헤이콧크

일 년 전에 킴볼 대관장님을 모시고 아리조나에 있는 대관장님의 고향에 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소년 시절을 보낸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사형 계단을 올라가 텅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집사가 되기 전 등불을 밝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윗층 방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젖소를 기르던 헛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식 방법으로 아홉 마리의 젖소에서 우유를 짰습니다. 그는 우유를 짜면서 신앙개조를 외웠고 찬송가를 배웠으며, 심계명을 외웠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 땅에 놓고 보면서 소의 젖을 짰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성장하고 있었으며,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나쁜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권하면 사양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흥차나 커피를 권하면 사양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권하면 거절해야 하겠으며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라고 권해도 거절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집사가 되기 전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러한 모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리라고 결심하였다.

그가 성장할 때, 친구들이 주변에서 “스펜서, 담배 피우겠나? 위스키 한 잔 마시지? 커피 좀 마실래?”라고 하면 그는 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읍니다. 안하겠다는 대답을 하기로 한번 결심을 한 뒤로는 늘 나쁜 것을 거절하기가 쉬웠읍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신 방법입니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아 니오 라고 말할 것을 결심하라고 권고하며 예언자께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그런 결심을 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당부합니다. 세월이 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접하게 되며, 여러분의 부모가 멀리 계실 때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아 니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할 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권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권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대관장님의 비서로서,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5년째 그분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주의 예언자라고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음은 참됩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만형이십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1978년 10월 2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발췌 (헤이콧크 형제는 현재 킴볼 대관장의 비서임)

준비의 신권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나에게는 아들이 일곱 명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그들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또 다른 벨기세택 신권 소유자를 갖게 될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는 벨기세택 신권 소유자가 없습니다. 장로가 된 아들들은 선교 사업에 나가거나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남아 있는 신권은 아론 신권 뿐입니다. 내가 자주 집을 비우게 되므로 나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나의 어린 아들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이 신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며, 우리 가족의 경험담 한두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몇 해 전 우리 아들들이 여름에 할아버지의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려 하였습니다. 십 이년 전에 나의 아들 중 하나에게 말한 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태어나자마자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목장에서 다른 야생 말 떼와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그 말이 두 살이 되었을 때, 길을 들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느 초여름에 우리는 목장으로 갔습니다. 말들을 목장 우리 안으로 넣는 데에 하루 온종일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들의 말을 잡아 무거운 굴레를 씌웠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밧줄을 걸어서 큰 기둥에 매어 두었습니다. “이제 말을 이삼일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한다.” 내가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말이 밧줄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조용해질 때까지 말이다.” 우리는 오전 내내 이 일을 하였으며, 일을 마치고 식사하러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굶히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의 말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는 열 네 살이었는데 그 말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식사를 끝마쳤을 때 나는 시끄러운 소음을 들었고, 아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말을 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의 끈을 풀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혼자서 해보려 했던 것입니다. 말을 단단히 잡기 위해서 그는 밧줄을 그의 허리에 감았습니다. 내가 문밖으로 나와 보니 말이 뛰어 지나갔고 내 아들은 말에 끌려서 뛰어가는 넘어졌습니다. 말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면 말은 문을 나가 산중으로 달아났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말은 왼쪽으로 돌아서 두 개의 울타리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말이 빠져 나갈 길을 찾고 있는 동안 나는 밧줄을 아들의 허리에서 끌러 그 끝을 말뚝에 감았습니다. 아들은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다시 그 말을 묶어 놓았고, 우리는 앉아서 부자간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네가 저 말을 다루려면 네 힘 이외의 다른 것을 사용해야 할 게다. 말은 너보다 더 크고 너보다 더 힘이 세거든. 언젠가 네가 저 말을 타게 되겠지만 그 전에 길들여야 해. 너도 저 말을 네 힘만으로는 길들일 수 없어. 너보다 더 크고 힘이 세고 거치니까.”

이년이 지난 어느 봄에 우리는 그 목장으로 갔습니다. 그 말은 겨우내 말떼들과 함께 들에서 뛰놀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우리는 강가에서 말 떼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면 말 떼가 뛰어 달아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과 딸이 말죽이 담긴 양동이

를 가지고 조용히 초원 끝으로 갔습니다. 말 때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휘파람을 불자 그의 말이 말 배들로부터 나와서는 아들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이년 동안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 이외의 다른 것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은 말을 풀어 주었던 일이 있던 후에 몹시 놀랐었습니다. 그는 불순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은 “아빠, 어떻게 해야 하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네 말이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는 준비하였고, 그리하여 큰 교훈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론 신권은 준비의 신권입니다. 아론 신권은 작은 신권입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란 말입니까? 청소년을 준비시켜 벨기세텍 신권을 소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신권은 청소년에게 인생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신권은 청소년을 지도자로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신권은 저들을 순종하도록 훈련하며 그들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신권은 저들에게 저들의 힘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2세가 되면 집사에 성임되어 정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참으로 정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은 일생 동안 정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집사 정원회는 12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지고, 교사 정원회는 24명의 회원으로, 제사 정

원회는 48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실하고 합당할 때, 여러분은 벨기세텍 신권, 곧 대신권에 성임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론 신권 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은 벨기세텍 신권을 받도록 준비하는 신권입니다. 우리는 벨기세텍 신권을 소유할 때 일을 처리하게 될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는 졸업하여 이학사 학위를 받고 큰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와 아내는 우리 가족을 떠나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가정을 갖는다는 것으로 무척 긴장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두 가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큰 방에서 많은 기사들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그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직장에는 조금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며 항상 맡겨진 일보다 조금씩 더하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은 정시에 퇴근하고 싶어했습니다. 동료 기사 한 사람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요?”

“오늘 저녁에 만찬이 있어요.”

“무슨 만찬인데요?”

“정원회 만찬이에요. 부부 동반해서 특별한 만찬과 사교 모임을 갖기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동료 기사는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요. 나는 여기에 온 지 이년이나 되었지만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 아내와 나는 항상 의외이라요. 그런데 당

신은 여기에 온 지 겨우 두 달밖에 안되는데 벌써 만찬 초대 를 받았으니.”

다음 경험입니다. 어느날 기사 한 사람이 내 아들에게 이사는 것을 도와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발견했지요. 토요일에 그리로 이사하려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들은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들을 위하여 식빵과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그 후에 아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어요. 그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예요. 저도 그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지요. 그런데 그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청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아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졌는지 한번 봐 주세요.”

그와 그의 아내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는 그의 정원회로 달려갔으며, 그날로 정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정원회란 서로를 지지해 주고 도와 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신권 정원회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돕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금식 헌금을 모으고, 다른 지명을 수행하며, 성찬, 가정 복음 교육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돕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왜? 여러분은 정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회라는 말은 훌륭한 말입니다. 교회에서 정원회의 가치가 결코 완전하게 인식되고 있지 못합니다.

정원회에 속하는 것은 크나큰 명예입니다. 정원회를 감리하는 부름은 큰 책임입니다. 정원회 서기로 또는 정원회 교사로의 부름도 훌륭한 책임입니다. 정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로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위원회를 형성해야 할 경우, 그들은 이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였으며, 그들에게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증명서에 정원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이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선택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Quorum vos unum, 즉 “여러분은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정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일생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론 신권을 소유했던 것을 감사히 여기며, 지금도 그 신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들이 이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신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복음은 참됩니다. 신권은 훌륭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혼 부부가 준 선물

유진 에이 카푸토

프랜사인과 나는 서로 알기 오래 전
에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 두 사
람의 부모는 양쪽 다 교회 회원이 아니
었다. 우리가 서로 만나, 신전에서 결
혼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우리는 가족에
게 그들이 우리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우리는 교회의 합당

한 회원만이 신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은 몹시 마음이
상했고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태도는 이러했다. “이날은 너희들의 생
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우리가 합
계 이날을 지내는 것을 너희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부모들이 우리를 사려깊

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실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다.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우리였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곤경에서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던 비회원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모두 우리의 감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전에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도를 드린 후 우리는 이러한 응답에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를 축하해 주는 피로연을 갖는 대신에 신혼 부부인 우리가 손님들을 위하여 피로연을 갖기로 하였다.

우리는 초청장에 피로연의 처음 부분에 특별한 순서가 포함될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는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기념 사진을 모두 찍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각이 되자 우리는 약 20분 동안 손님을 차례로 맞아들였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에게 자리에 앉도록 권하였다.

기도를 시작으로 감독님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셨다. 우리는 많은 비회원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좋게 받아들였음을 알았을 때 무척 기뻐다. 우리의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의 음악 순서와 세 가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감독님이 영원한 결혼에 대하여 너무도 분명하고 아름답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손님들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하였던 기쁨과 환희를 느꼈다고 후에 말하였다.

다음에는 프랜사인과 내가 말씀을 드렸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 가족과 친구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대하여 간단하고 간결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하였으며 영원한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간증을 말하였다.

프로그램은 기도와 음식 축복 기도로 끝났다. 우리는 손님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전 결혼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우리의 간증에 대하여 고맙다는 뜻을 표하였다. 나의 장인 어른께서는 거듭거듭 프로그램에 대하여 내게 고맙다고 인사하셨다. “이제 나는 프랜사인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겠네.”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식사가 끝나고 나의 부모님의 구라파식 전통인 “머니 댄스”가 시작되었다. 머니 댄스란 신랑과 신부가 먼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사이에 끼어 들고 싶으면 신부나 신랑에게 1불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춤을 추는 동안 많은 손님들이 프랜사인이나 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였고, 우리가 물론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기도 하였다.

후에 많은 손님들은 그 피로연이 그들이 참석했던 가장 훌륭한 피로연이었다고 말하였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랑스럽고 즐거운 듯이 보였다.

우리의 피로연을 손님들에게 드림으로써 우리는 더 큰 선물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다. 그것은 영원한 결혼과 주님의 위대한 영원한 진보의 계획의 내면의 모습이었다. *

바른 방향으로 움직임

백잔 파크



우리의 조그마한 파란 자동차가 시골길을 달려나가며, 지난 오년 동안 그토록 정을 듬뿍 쏟았던 정든 집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했다. 엄마가 나와 두 여동생이 탄 차를 몰고 계셨고, 아빠는 우리 자동차 앞에 가는 침대, 책상, 낡은 피아노, 그릇, 옷 그리고 갖가지 추억을 높이 실은 빌린 트럭에 타고 계셨다. 우리가 살던 조그마한 마을(인구 880명)을 떠나 26,000명의 인구가 모인 대도시로 이사해 가는 것은 두려운 것이었다. 그때 나는 열두 살이었으며, 내가 살게 될 이상하고 새로운 곳이 시골의 깨끗한 공기와 뒤에 남기고 온 따뜻한 정을 결코 대신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확신하였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우리의 새로운 작은 집에 정주하게 된 후 나는 더운 여름날을 거의 침대에 누워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친구들에게 편지쓰는 것으로 보냈다. 그러나

8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는 내가 떠난 마을의 사람들 전부를 모아 놓은 것만 큼이나 많은 학생들이 있는 큰 학교에 가게 되는 것에 약간 흥분하기 시작했다.

새 옷을 입고 점액은 미소를 지으며 나는 9월에 그 학교 건물에 들어가 첫 번째 수업을 받게 되었다. 나는 교실 앞쪽에 자리를 잡고 나서 앞에 앉은 소녀가 뒤 돌아보며 내게 자기 소개를 해왔을 때 무척이나 기뻐했다.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곳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했고, 축구를 좋아했다. 그들도 역시 산수 시험이나 추운 날씨나 경쟁이 되는 학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학년은 옛 교향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던 계획까지도 취소하게 되었다.

나는 학교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였으며 밴드부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나에게 소속감이라는 안정감을 주었을 을 곧 발견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



는 곧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올 더 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교회 회원이었지만 늘 내가 살던 집 바로 뒤에 있는 신교 교회에 참석하였었다. 당시에는 그곳에 지부가 없었고 우리 가족은 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와드까지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 온 후에 우리는 말일 성도 교회의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컸고,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다. 그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을 나는 거의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는 테레사라는 소녀와 친하게 되었으며 어느날 그녀는 나를 상향회에 초대하였다. 그녀가 상향회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는데도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소년 소녀가 밤에 참석하여서 재미있는 공과와 활동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거의 한번도 상향회에 빠지지 않았다. 상향회는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준 인상깊은

곳이었다. 나는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다만 나의 친구와 지도자들이 내게 보여 주는 사랑과 우정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나는 내 생애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준 따스함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내가 비활동 소년 또는 소녀의 이름을 들을 때, 나는 그들이 모두 활동 회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나에게 계속해서 상향회에 나가자고 권했던 훌륭한 친구, 테레사와, 나를 활동하게 만든 와드의 모든 이해심 많은 회원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나는 그들이 “저기 또 비활동 회원이 있네. 저 자매의 문제는 뭐지?”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오히려 “저 자매의 장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녀가 필요해.”라고 생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상향회는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다.…… 노년의 모임, 소녀들의 야영, 영원한 친구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복음에 대한 간증과 상향회가 청소년들의 생애에 줄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에 대한 이해력을 준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많은 비활동 소녀의 한 사람이었다. 내가 영원히 비활동 소녀로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비활동 회원이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 주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를 생각한다. 해롤드 비 리 대판장은 이렇게 말 씀하셨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도 반드시 많은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영원한 우선 순위의 선택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여러 해 전, 일본 오오사카에서 나는 일본인 교회 역원 한 사람으로부터 면회 요청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를 나의 호텔 방으로 초대하였으며 그곳에서 나는 내가 만나 보았던 가장 총명하고 분별력있는 젊은이 가운데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별한 과학 분야를 전공하여, 안정성있고 전통이 깊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 분야에서 졸업반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의 친구 한 사람은 동경에 있는 급성장하는 젊은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번 그 동경의 친구로부터 직장을 바꿔 보라는 권고를 받았다. 동경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이 교회 회원과 접촉하여 현재 그가 받고 있는 봉급의 세 배 또는 네 배까지 급료를 올려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대답은 이러했다. “내가 오오사까를 떠난다면 현재 교회에서의 직분으로 부터 해임되어야 하는데 만일 내가 오오사까를 떠나는 것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조금이라도 언짢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내게 돈을 얼마를 주든지 나는 그 제안에 흥미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부사장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소. 다만 당신을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고 있을 뿐이오.”

그가 오오사까를 떠나 동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하여 그가 교회의 직분에서 해임되어야 하는 것인가? 물론, 나는 그에게 동경에서도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동경으로 갔다. 후에 내가 동경을 방문했을 때, 그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만나서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경험을 넓혔으며, 본사에서 다른 방계 회사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기획하는 인사 관리의 지도자였다.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 수입도 대단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다만 그가 참으로 마음을 돌이켰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성구가 있다고 말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나는 이 성구가 약간의 반발을 일으켰다는 것을 느꼈으나 그래도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몇 주 후에 그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는 자기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회사를 그만 두었다. 그의 우선 순위 제1위는 가족과 교회였고, 제2위가 직장이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우리가 열 길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물론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먼저 목적을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은 비행기 조정사가 승객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발표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좋은 소식은 “우리는 지금 시속 965 킬로미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이고 나쁜 소식은 “우리는 항로를 잃었습니다”이다. 그의 목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우선 순위가 혼동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최근에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부모와 함께 나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녀는 훌륭한 가문 태생이나, 탈선하여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미혼인데 임신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러 온 것이었다.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그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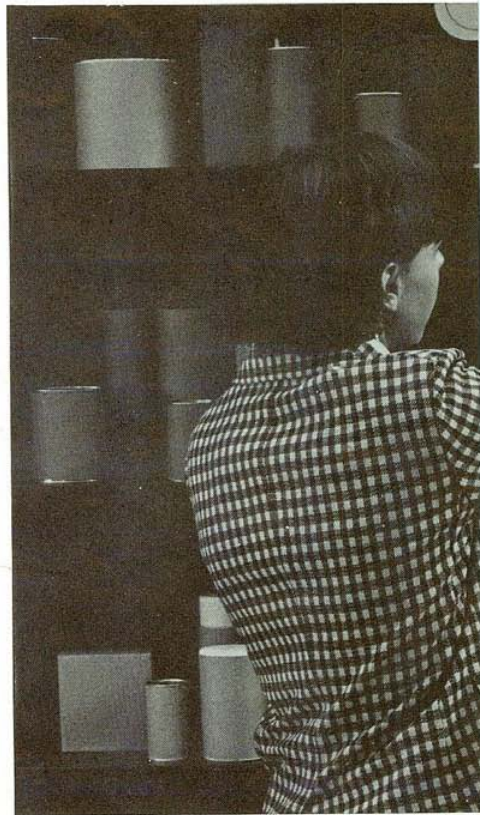
주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내가 기도해 보았느냐고 묻자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필요하면 더 자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는 우리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면 우리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매달 첫째 목요일에 총관리 역원은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솔트레이크 신전 다락방에서 모임을 갖는다. 나에게 있어서 이 모임과 관련된 가장 영적인 일 중의 하나는 구세주의 생애를 보여 주는 세 개의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 그림들은 대관장단이 앉는 좌석 위의 벽에 걸려 있다. 하나는 갈릴리 해변에 계시는 구세주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림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덤에서 일어나신 직후의 그의 그림이다. 이 마지막 그림이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그림이다.

화가는 부활하신 주님의 면전에서 사람이 지니게 될 감정을 잘 묘사하였다. 구세주께서 똑바로 서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미소로 내려다 보고 계시는 그림이다. 여인은 경건하게 주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에는 경배하는 모습을 띄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

구세주께서 받아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모든 말일성도 형제 자매가 취하여야 할 우선 순위의 제1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신전 결혼과 시온에서 의로운 부모가 되는 것도 목표가 될 것이다. 의롭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은 여호와와의 주신 기업이요……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127 : 3, 5)



훌륭한 성도 가정의 한 딸이 최근에 부모에게 자녀를 전혀 갖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일원으로 된 가족의 규모에 수치를 느꼈다고 말하였다. 그 가정에는 네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에게 그들이 더 이상의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자식은 여호와와의 주신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여러분 중에도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이 세상에서 의로운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상으로 중요한 책임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없을 것이다.

우선 순위의 상위에 있어야 할 다른 하나는 “예언자의 음성”이라는 찬송가의 첫 부분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 이 지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 주님과 말씀하시는 예언자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예언자로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자녀야 함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순종에 대한 좋은 교훈의 하나가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의 병을 고쳐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나아만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다. 엘리사가 왕의 고민을 듣고

오늘날의 사회에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많이 있다. 그 음성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혼의 정사는 극히 당연스럽고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이며 남녀가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자녀는 두 명만 가져야 하고 자녀를 전혀 갖지 않으면 더욱 좋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 달라고 하였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그 대답이 너무도 간단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는 자기의 위엄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 하였다.

“그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구세주도 순종을 배우셨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요”(히 5: 8—9)

확실히 순종은 가치있는 목표이며 인생에 있어서 우선 순위의 상위에 두어야 될 부분이다.

우선 순위의 상위에 놓여야 할 것은 끝이 없이 많은 것 같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중 많은 것들이 동시에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는 구세주께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신 것과 같은 봉사이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네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오늘날

이 지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
주님과 말씀하시는 예언자들
갖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예언자로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지녀야 함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에 예수께서는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은 사람을 발견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다. 강도를 만나 번을 당한 사람 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 버렸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고 돌아 보아 주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으셨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 : 25—29, 36—37)

인간에 대한 봉사는 참된 말일성도의 생활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기억해야 할 다른 원리가 많이 있어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며, 회생이 그중 하나임을 밝힌다.

여러분은 경전에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나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한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눅 18 : 22—24)

십일조와 금식 헌금과 와드 예산과 그 외의 모든 필요한 헌금을 바치는 자는 헌납의 법을 순종하며 살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준비를 갖추는 때 더 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그 수가 충분치 않을 것이다. 나는 준비를 갖춘 한 훌륭한 자매를 알고 있다. 그녀는 교통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고, 남편은 그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 그녀는 젊은 나이에 두번째로 미망인이 되었다. 그녀는 그같은 어려움에

서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하였고 아직 키워야 할 어린 자식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에서 십일조를 바쳤다. 재정 서기는 감독에게, “.....자매님에게는 이 돈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합니다. 이 돈을 도로 자매님께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하고 말하였다.

감독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이러한 질문으로 그의 질문에 답하였다. “.....자매님이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얻는 축복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젊은 어머니의 신앙과 헌신에 대하여 주께서 얼마만큼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교회의 청소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힘과 그러한 힘이 올바른 소망을 향하여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은 터지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와 아버지께서 열 네 살의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음을 안다. 나는 그 시현이 있을 후 여러 해 동안 요셉이 그의 사명을 위하여 연구하고 기도하였고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음을 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우연히 생기지 않는 것처럼, 그에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창조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선 순위가 열쇠이다. 그리고 우선 순위의 맨 처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

